

저수지에 손길을, 농업용수에 생명을

-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일로2저수지서 환경정화 행사 진행 지자체·주민 참여 속 수질개선사업 공유 및 협력 요청 "깨끗한 농업용수는 지역 협력에서 시작" 지사장 강조

2025.05.23 05:28 입력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현장 실천이 무안 일로2저수지에서 펼쳐졌다. 주민과 공무원, 공사 직원이 힘을 모아 환경정화와 수질보전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지사장 범필재)는 2025년 5월 22일 무안군 몽탄면 당호리에 위치한 일로2저수지에서 저수지 주변 환경정화 행사와 연계해 『2025년도 쓰담쓰담 캠페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수질환경보전회 구성원과 지사 직원, 무안군청 관계 공무원, 마을 주민 등 총 3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며 저수지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 낚시에 대한 계도 활동과 마을

주변 수질오염 감시활동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청소활동을 넘어 수질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지역주민 간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추진 중인 일로2지구 수질개선사업의 현황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범필재 지사장은 "저수지 수질 개선은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과제"라며 "환경정화 활동과 같은 지역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농업용수 확보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와 농업 기반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 박진성기자 s9611006@hanmail.net